

2012. 8. 20 제293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2. 8. 20 제293호

문화·디자인

(토막기사) '세계 도시문화 정상회의' 세계 최초로 개최 (런던市)

산업·경제

1. 지역 내 '소셜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일본
요코하마市)

2. 해외 특허출원 비용 지원 (도쿄都)

(토막기사) '도시활력 향상을 위한 관광진흥전략' 발표 (도쿄都)

(토막기사) '12·5 자동차산업 발전규획'을 통해 '자동차 R&D 및 제조 도
시' 조성 추진 (베이징市)

(토막기사) 국내외 고급인재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베이징市)

건강·복지

3.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비만예방을 위해 과일 및 야채 할인혜택 제공
(뉴욕市)
4. 남성의 육아휴가 의무기간 확대 추진 (스웨덴)
(토막기사)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뉴욕市)
(토막기사) 도심에 인공 모래사장과 놀이시설 설치 (프랑스 외)

도시환경

5. 중소기업에 소형 열병합시스템 설치 보조금 지원 (베를린市)
(토막기사) 녹색기반시설을 현장에 맞게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한 보고서
발간 (스코틀랜드)
(토막기사) 소형 전기자동차를 지역 방범순찰에 활용 (일본 요코하마市)

도시교통

- (토막기사) 구글과 협력해 지하철 도착시간 예측 프로그램 운용 (뉴욕市)
-

문 화 · 디 자 인

‘세계 도시문화 정상회의’ 세계 최초로 개최 (런던市)

– 런던市는 세계 최초로 ‘세계 도시문화 정상회의’(World Cities Culture Summit)를 개최함. 이 행사는 세계도시에서의 문화의 중요성과 문화 및 경제발전 간의 깊은 연관성을 알리고 금융과 무역 중심도시를 넘어 문화도시 런던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함임. 이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의 문화분야 전문가와 정책입안자가 함께 자리해 세계도시에서의 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세계 여러 도시가 펼치고 있는 문화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 세계 도시문화 정상회의에는 뭄바이, 상하이, 상파울루, 뉴욕, 파리, 런던, 이스탄불, 시드니, 싱가포르, 도쿄 등 12개의 세계적인 문화도시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함. 市는 이번 정상회의가 도시의 번영과 문화의 상관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투자 유치로 이어지게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함. 특히 세계도시 런던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함.

(www.london.gov.uk)

산 업 · 경 제

1. 지역 내 ‘소셜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일본 요코하마市)

○ 일본 요코하마市 경제국은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소셜 비즈니스(Social Business) 사업가를 대상으로 외부지원 인력과의 협동을 통한 사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

해 아래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되는 ‘Yokohama Changemaker’s CAMP 2012’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Social Business는 지역사회의 환경보호, 고령자 및 장애인의 개호·복지에서부터 육아지원, 마을 만들기, 관광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비즈니스 수법을 활용해 대처하는 사업을 말함.

- ① ‘브러싱 업 미팅 코스’(Brushing Up Meeting Course)는 의뢰자가 실시하려는 사업에 대해 지역 내의 경영자 또는 그 사업분야와 관련된 전문가가 지역 내 인맥을 소개하는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코스로 사업계획 작성, 홍보, 인재관리 등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지역 내에서 협력할 상대를 찾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임.
 - 창업한 지 2년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프로그램 중 4건을 선발해 1개 프로젝트별로 한 달에 한 번 3회 연속 미팅을 개최해 조언을 제공함.
- ② ‘리서치 코스’(Research Course)는 젊은 사회인과 행정직원 4~5명이 ‘프로보노팀’을 구성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뢰자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는 사회문제의 조사나 사업의 유효성 등을 3개월간 조사해 주는 코스임. 프로보노란 ‘공동의 선을 위해’라는 의미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약자로 자신의 업무상 능력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말함.
 - 프로보노 형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업무시간 이외에 진행되며 킥오프나 중간미팅에서 목표설정, 작업분담 등을 한 다음 실제 작업은 개인별로 진행해 나가는 방식임.
 - 단순히 시장조사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수요

발굴이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회현상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부족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사업가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임.

- 2012년에 새로이 도입된 ③ ‘지역응원 살롱 코스(Salon Course)’는 취업이 힘든 청년, 노인, 장애인, 육아 중인 여성 등의 모임장소를 만들어 커뮤니티를 형성하려는 사업을 몇 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가가 그 노하우를 다른 지역에서 같은 분야의 사업을 착수하려는 후발 주자에게 전수해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3개월간 컨설턴트가 정기적으로 개별 만남을 추진해 사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응원 살롱’이라는 홍보지원 및 후발주자와의 만남의 장소 만들기, 콘텐츠 작성 등을 지원하고 해당 연도 말에 경영진단서와 매뉴얼을 제공함.
- 2012년 8월 1일부터 20일간 모집과정을 거쳐 8월 하순에서 9월 초 사이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할 예정인데, ① 사회적 임팩트의 크기, ② 프로젝트의 목적 및 내용의 명확성, ③ 사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 ④ 사업에 대한 실현의지를 기준으로 선정하게 됨.

(www.city.yokohama.lg.jp/keizai/happyou/h24/20120801100852.html)

(http://yokohama.etic.or.jp/camp/wp-content/themes/camp/images/CAMP_boshuyoko.pdf)

(<http://yokohama.etic.or.jp/camp/>)

2. 해외 특허출원 비용 지원 (도쿄都)

○ 도쿄都 산업노동국은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지적재산 전략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특허출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기로 함.

- 최근 도쿄에서는 중소기업 중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활용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 보호 및 모방에 대처하는 소극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등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품 개발, 제조, 판매 및 라이선스 계약 등에 있어 지적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각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지원 대상이 되는 경비는 해외 특허출원 수수료, 변리사 비용, 번역료 등이며 지원 대상 경비의 2분의 1 이내, 300만 엔(약 4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됨.

- 都가 실시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해외 의장·상표 출원 지원사업: 외국에 진출할 예정인 중소기업이 디자인과 상표를 외국에 출원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해외 의장 및 상표 출원 수수료, 변리사 비용, 번역료 등의 2분의 1 이내, 60만 엔(약 8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해외 침해 조사 비용 지원사업: 외국산 모방품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침해상황 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침해 조사 비용, 침해품 감정 비용, 침해 대상에 대한 경고 비용, 세관의 수입금지 관련 대책 비용 등의 2분의 1 이내, 200만 엔(약 2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특허 조사 비용 지원사업: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해 다른 회사의 특허를 조사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임. 조사 위탁 비용의 2분의 1 이내, 100만 엔(약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www.metro.tokyo.jp/INET/BOSHU/2012/08/22m82100.htm)

(www.metro.tokyo.jp/INET/BOSHU/2012/08/22m82101.htm)

‘도시활력 향상을 위한 관광진흥전략’ 발표 (도쿄都)

- 도쿄都 관광사업심의회는 都의 요청(2010. 10. 14)에 따라 2012년 7월 24일 ‘도쿄의 활력 향상을 위한 관광진흥의 전략적 조치’라는 都 관광진흥을 위한 세부적인 목표와 전략을 발표함.
- 都 관광사업심의회는 관광진흥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하고,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행객을 수용해 일본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여행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진흥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여행자의 기대 및 신뢰를 제고하는 ‘도쿄 브랜드’의 확립을 통해 여행자를 유치하고 도쿄가 일본 관광진흥의 견인책으로서 일본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한 뒤 5대 전략 및 이에 대한 세부 대책을 제시함.

【도쿄都 관광진흥을 위한 전략 및 세부 대책】

전략	세부 대책
1. 양과 질 모두에 충실한 효과적인 외국인여행자 유치대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기능 강화를 통한 전략성 확보 - FIT(Foreign(Free) Independent Travel(Tour))의 증가에 따라 개인 여행자를 중시한 프로모션 전개 - 도쿄 전체를 상징하는 이미지 전략을 통한 여행자 욕구 증진 - 다른 도시와의 연계를 고려한 광역적인 대책 전개
2. 유치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MICE 프로그램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eeting, 국제회의), I(Incentive, 기업의 장려 및 연수여행), C(Convention, 학술분야 회의), E(Exhibition/Event, 전시회·이벤트 등) 등 각각의 대상에 따라 세심한 전략 전개 - 전통·문화 등을 살린 독자적인 유치 지원 메뉴를 통한 매력 창출 - 도쿄의 강점을 배경으로 MICE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 전개 - 지역의 각 주체가 하나 되어 MICE를 수용하는 시스템 구축

전략	세부 대책
3. 지역자원을 활용해 여행자에게 가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자원의 가치 향상, 새로운 자원의 발굴 및 재발견을 통한 가치 창출 - 관광자원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거리나 일생생활 등에 주목한 매력 연출 - 행정구역을 전제로 하지 않는 광역적인 조치 - 다마 지역 및 도서 지역의 관광진흥 추진
4. 여행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수용환경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어 표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언어 대응을 중시한 수용환경 확충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등 첨단 트렌드 및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한 관광정보 제공 촉진 - 시가지 내 안내정보망 확충, 관광안내소 기능 강화 등 여행자의 눈높이에 맞춘 편리성 향상 - 긴급상황 및 재해 발생 시에도 여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추진
5. 도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관광분야 인재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을 포함해 관광에 관한 매니지먼트를 담당할 인재 육성 및 활용 - 관광의 관점에서 마을 만들기 등 지역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할 인재 육성 및 활용 - 해외 문화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 가능한, 친절하고 국제감각을 갖춘 인재 육성 -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관광안내 및 정보 제공에 재일 외국인 활용

(www.metro.tokyo.jp/INET/KONDAN/2012/07/40m7pc00.htm)

(www.metro.tokyo.jp/INET/KONDAN/2012/07/DATA/40m7pc00.pdf)

(www.metro.tokyo.jp/INET/KONDAN/2012/07/DATA/40m7pc01.pdf)

‘12·5 자동차산업 발전규획’을 통해 ‘자동차 R&D 및 제조 도시’ 조성 추진 (베이징市)

- 베이징市 경제정보화위원회는 ‘베이징市 12·5 자동차산업 발전규획’(北京市 十二五汽車產業發展規劃)을 통해 전체 산업에서 자동차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2015년까지 2010년보다 15%에서 20%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2012년 7월 11일 발표함. 또한 우수한 신에너지(친환경) 자동차 제조 및 응용 기술을 토대로

2015년에 신에너지 차량을 10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 12·5는 제12차 5개년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됨.

- 11·5 기간(2006~2010년), 베이징 자동차 생산액의 연평균 증가 폭이 20%를 넘어 동기 대비 전국 평균 수준을 넘어섬. 2010년까지 베이징 자동차 판매량은 150만 대였으며, 경제가치는 약 2000억 위안(약 35조 6600억 원)에 달함.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급 수요가 늘어나 12·5 기간 동안 베이징 자동차산업은 기초를 다져 경쟁력을 높여야 할 상황임.
 - 12·5 계획의 목표에 따라 2015년 베이징 자동차 판매량이 300만 대를 돌파해 산업가치가 5600억 위안(약 99조 8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市는 국내 자동차산업 순위를 기존 8위에서 6위로 끌어올려야 함에 따라 베이징 자동차그룹의 산업가치가 3000억 위안(약 53조 5000억 원)을 넘을 수 있도록 육성하는 동시에 관련 부속기업의 산업가치도 100억 위안(약 1조 7800억 원)을 넘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신에너지 자동차 부문에서는 베이징이 전지 등 부속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市는 순수 전기자동차의 개발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으면서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의 개발도 꾀하고 있음. 현재 베이징 신에너지 자동차는 주로 대중교통, 환경위생, 택시 부문에서 시범 운행되고 있음. 2012년 목표는 5000대의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임.
- － 베이징 12·5 자동차산업 발전계획은 자동차산업의 첨단화, 다각화 등을 추진해 베이징을 국제적인 자동차 R&D 및 제조 도시로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음. 러시아, 인도 등 개도국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으로도 진출할 계획임. 나아가 해외에 조립공장이나 협력공장을 건설해 자동차 수출을 확대할 예정임. 市는 또한 자동차 금융, 자동차 물류, 자동차 판매 서비스 등 자동차와 관련된 생산서비스업 역시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北京日报, 2012. 7. 12)

국내외 고급인재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베이징市)

- 베이징市는 2012년 7월 18일 ‘2012년도 베이징市 국내외 고급인재 유치 언론 보고회의’를 열고 국내외 고급인재 수요가 있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기관에 고급인재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조사 결과 市 산하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소, 기업 등 모두 1085개소가 고급인재를 필요로 했으며, 그 중 해외 고급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은 226곳, 해외 전문기술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은 325곳, 중관춘 인재 특구협회가 필요로 하는 창업형 해외 고급인재는 135명, 국내 인재 유치 특별계획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399곳인 것으로 나타남.
- 2012년도 국내외 인재 유치 특별계획은 베이징市의 중점 산업과 분야, 사업에 필요한 고급인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주로 전자정보, 첨단장비 제조, 환경보호 등 신흥산업으로 젊은 고급인재가 필요한 부문임.
- 이는 중앙정부의 ‘천인계획’을 따르는 동시에 베이징을 세계적인 인재가 모이는 도시로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음. 천인계획은 경제와 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10년간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려는 프로젝트로 2008년부터 시작되었음. 市는 2009년 6월부터 ‘해외 인재 결집사업’을 실시해 창업인재 유치 등을 가속화하고 있음.
- 동시에 고급인재 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市는 중관춘 인재 특구를 건설 중임. 과학연구 인재 평가시스템, 혁신 성과 전환시스템, 과학기술 금융 협력시스템, 중앙과 지방 인재 공동활용시스템,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인재 특구 평가시스템 등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음.
- 베이징市 국내외 고급인재 유치 특별계획은 市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사이트(www.bjrbj.gov.cn)와 베이징 해외학자 사이트(www.8610hr.cn)에 게시되어 있음. 여기에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관명, 필요로 하는 전공분야, 연락처 등이 소개되어 있음.

(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网站, 2012. 7. 18)

건 강 · 복 지

3.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비만예방을 위해 과일 및 야채 할인혜택 제공 (뉴욕市)

- 뉴욕市는 저소득층을 위해 야채 및 과일 가격을 의무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 중임. 5개 區 138개 Farmers Market(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혹은 상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정책은 푸드 스탬프(Food Stamp)를 받는 소비자에 한해 약 5000원 상당의 야채 혹은 과일을 구매할 경우 2000원을 할인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뉴욕市에서는 성인의 58% 이상이 비만이나 과체중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비만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 등의 성인병이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음. 흑인 및 남미계 성인의 비만율이 더 높고, 나이가 어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번 정책은 저소득층일수록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접할 기회가 적어 고도 비만과 같은 건강문제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것임.
- 市는 도시 전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만에 대한 여러 대응책으로 점점 건강한 식생활문화로 개선되고 있고 현재 싱싱한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하지 못하는 성인의 비율이 2004년과 비교해 크게 줄었음을 발표함.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뉴욕市 전체 식생활 개선 패턴 변화와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된 것임.
- 이번 정책으로 2012년 여름 동안에만 4억여 원 상당의 과일 및 야채를

무료로 지원하게 됨. 추가로 영양학 교육을 실시하는 상점도 18개소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함. 市 홈페이지에서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Farmers Market 검색이 가능함.

- 市는 가공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는 것이 손쉽지만 이로 인해 잘 못된 영양공급과 건강상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 저소득층의 영양문제에 대해 도시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힘.

- 市는 2008년부터 Farmers Market이 아닌 상점에서도 저소득층에게 야채 및 과일류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또한 코넬대학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협력해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市는 2012년 1월 비만대책 TF를 결성해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12b%2Fpr252-12.html&cc=unused1978&rc=1194&ndi=1)

4. 남성의 육아휴가 의무기간 확대 추진 (스웨덴)

- 스웨덴은 아버지에게 대한 의무 육아휴가 제도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남성도 일정 부분 육아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행복,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음. 스웨덴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무 육아휴가 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통으로 적용됨.

- 의무 육아휴가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녀 출산 이후부터 8세에 이르기까지 최대 13개월까지 기존 월급의 80%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음. 단 상한선은 월 3300달러(약 370만 원)임.
 - 육아휴가 기간에는 부모의 고용이 보장되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빠와 엄마 모두 2개월의 의무 육아휴가 기간을 가져야 함.
 - 12개월 이상의 영아에게는 월 150달러(약 17만 원)의 탁아소(어린이집) 보조금을 지급함.
 - 자녀가 아플 때에는 연간 최대 120일까지 유급휴가를 보장하며 기존 월급의 80%를 보장함.
- 1974년 제정된 아버지의 육아휴가 방침은 1970년대 노동력이 부족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성 평등과 가정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
- 여러 유럽 국가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노동력을 수입한 반면, 스웨덴은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육아휴가 도입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에 문제가 없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현재 여러 국가의 롤 모델이 되고 있음.
 - 스웨덴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많은 남성이 최소 2개월의 육아휴가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남성들의 육아휴가 덕분에 72%의 여성들이 파트타임을 포함해 노동인구로 활동하고 있음.
- 스웨덴의 육아휴가 제도는 외국인 거주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주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혜택이 가장 큰 제도임. 육아휴가 비용도 정부 공공지출의 0.8%, 37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에 달한다고 예측되고 있음.

그런데도 현재 스웨덴에서는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의무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

- H&M을 비롯해 많은 민간기업에서도 긴 육아휴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가 보조금 외에도 회사 차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음.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가를 차별하지 않으며 색다른 일을 경험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하나의 기회로 평가하고 있음. 또한 가정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회사에 더 많은 인재가 지원하고 있어 스웨덴 사회가 직장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정책은 인구가 적은 선진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 8000만 명이 넘는 독일에서도 적용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큼.
 - 독일은 2007년 스웨덴 모델을 도입해 14개월의 유급 육아휴가 기간 중 2개월을 아버지에게 할당하고 있음. 기존에 3%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현재는 20%를 넘어서고 있음.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의 Morgan 교수는 독일의 경우를 들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러한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함.



【스톡홀름 소재 공원에서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0872396390444226904577561100020336384.html?mod=WSJASIA_hps_MIDDLESeventhNews)
(www.nytimes.com/2010/06/10/world/europe/10iht-sweden.html?pagewanted=all)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뉴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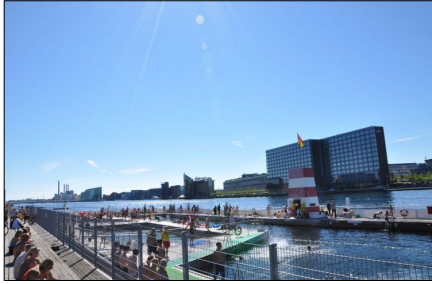
- 뉴욕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롤 모델이 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멘토가 되어주는 조력자를 모집해 어린이 및 청소년과 연결해 주는 BBBS(Big Brothers Big Sisters of New York City)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멘토들은 연간 격주로 해당 학생을 방문해 전문적인 조언과 장기적인 지원,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함.
- 이 프로그램은 100여 년에 걸쳐 7~18세의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멘토를 연결시켜 주고 있음. 또한 고등학생이나 직무교육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기술적, 정서적 멘토링을 제공해오고 있음.

(www.bigsny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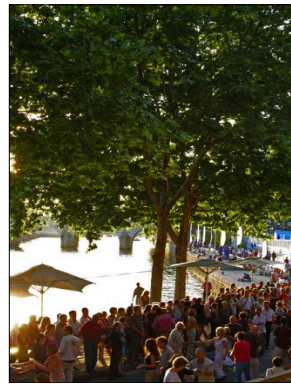
(www.nyc.gov/html/acs/html/become_mentor/become_mentor.shtml)

도심에 인공 모래사장과 놀이시설 설치 (프랑스 외)

- 도심에 모래사장과 놀이시설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도시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세계의 많은 도시가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도심에 해변을 조성해 도심의 또 다른 풍경을 연출하고 있음.
- 비치발리볼 경기, 콘서트 등을 관람할 수 있고 음악 DJ도 있어 신나는 음악을 즐길 수 있음. 간소한 복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지 못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휴가를 보낼 수 있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음.
- 처음으로 모래사장을 이용해 해변을 연출한 곳은 프랑스의 생캉탱(Saint-Quentin)이라는 도시임. 이후 파리와 유럽의 크고 작은 도시가 인공해변을 만들어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음. 다음은 여러 도시의 독특한 인공해변임.



【덴마크 코펜하겐 항구에 설치된 해변과 수영장(왼쪽). 베를린 강변에 있는 개인 해변으로 생음악을 즐길 수 있음(오른쪽)】



【파리 북동부에 있는 인구 6만 명의 도시 생캉탱(Saint-Quentin) 시청 앞에 마련된 인공해변(왼쪽). 파리의 센강변에서 6주간 운영되는 인공해변으로 미니 도서관이 설치되고 댄스 강습, 미니 골프 등이 진행됨. 2011년에 30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됨(오른쪽)】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는 시민의 80%가 피서를 떠나지 못함에 따라 이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해변을 만들었으며 시민의 호응에 힘입어 2007년 이후 9곳에 인공해변을 추가 건설함(왼쪽). 캐나다의 토론토 도시해변은 1년 내내 개장하며 노란색 파라솔로 유명함(오른쪽)】

(www.theatlanticcities.com/arts-and-lifestyle/2012/07/fun-real-beach-not/2639/#slide3)

도 시 환 경

5. 중소기업에 소형 열병합시스템 설치 보조금 지원 (베를린市)

- 베를린市는 중소기업의 열병합장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함. 이는 베를린市 환경부담 경감 프로그램(Berliner Umweltentlastungs Program)의 일환임. 베를린 환경부담 경감 프로그램은 도시의 환경개선뿐 아니라 도시산업의 환경친화적 성장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베를린市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임.
- 그동안 베를린市는 에너지효율과 기후보호정책의 틀 안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인 유치원, 학교, 소방서, 경찰서, 교도소 등 23곳에 열병합시스템을 설치함. 이 시스템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기존의 난방시설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30%까지 절약할 수 있음. 市는 그동안 이 시스템이 설치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에너지 수요를 약 7100메가와트 절약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500톤 저감함.
- 베를린市는 이번에 유로연합 지역발전기금으로부터 100만 유로(약 14억 원)를 지원받아 중소기업에 소형 열병합시스템 설치를 보조해주는 사업에 착수함. 市는 중소기업을 공모한 뒤 심사를 통해 선발한 기업에 전체 설치비용의 30~40%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함.
 - 응모 자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최대전력이 20~50킬로와트인 원동기를 가동 중인 중소사업체임. 市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지원 대상 사업체의 약 4분의 1을 바이오 가스나 목재 펠릿(Wood Pellet)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선발할 계획임.

응모를 원하는 기업은 2012년 11월 3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207/nachricht4721.html)
[arch_1207/nachricht4721.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207/nachricht4721.html))
(www.uep-berlin.de/)

녹색기반시설을 현장에 맞게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한 보고서 발간 (스코틀랜드)

- 스코틀랜드 정부는 보다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녹색기반시설: 디자인과 장소 만들기’(Green Infrastructure: Design and Place-making)라는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뉨.
 - 첫째, 녹색기반시설의 개념을 비롯해 녹색기반시설 관련 정책이나 사업 단계 중 녹색기반시설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대해 설명함. 또한 도시계획 및 설계 시 녹색기반시설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이 가지는 장점을 소개함.
 - 둘째, 마스터플랜에 녹색기반시설을 접목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룸. 특히 스코틀랜드 정부가 시도한 도시디자인 사례 중에서 녹색기반시설을 훌륭하게 활용한 6개 모범사례를 통해 녹색기반시설의 장점을 정리함. 또한 입지 선정을 위한 실사를 나갔을 때 녹색기반시설 설치도 함께 고려하는 방법을 설명함. 이해를 돕기 위해 뉴욕과 프라이부르크 사례도 추가함.
- 녹색기반시설이 잘 설치되었을 때 환영(Welcoming), 독특함(Distinctive), 안전하고 쾌적함(Safe and Pleasant), 이동이 편리함(Easy to Move Around),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Resource Efficient), 유연함(Adaptable) 등을 느낄 수 있음. 녹색기반시설의 장점별 특성요소는 아래와 같음.
 - 환영: 문과 입구의 특징을 잘 살림. 주변을 돌아보기 쉽게 설계함.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도록 장소를 만듦.
 - 독특함: 풍경의 특성과 정체성을 강조함. 독특한 디자인을 활용함. 그 장소만의 독특한 느낌을 재창조함.

- 안전과 쾌적함: 설계를 통해 안전문제를 해결함. 설계와 유지를 통해 질 높은 기반시설을 제공함.
 - 편리한 이동: 녹색공간을 연결한 네트워크 조성, 사람 간 연결 강조, 야생동물의 이동 용이
 - 자원의 효율적 활용: 물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 건축자재의 지속 가능한 사용, 에너지 절약과 구역별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활용
 - 유연함: 다목적 오픈스페이스 창조, 생산물이 나올 수 있는 조경 설계
-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도시계획가, 조경분야 종사자, 건축설계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이 녹색기반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업을 수행할 때 보다 적용하기 쉬운 지침을 제시하는 데 주력함. 또한 다양한 도시계획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준에서부터 도시거리 설계와 같은 단위사업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맥락과 범위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와 지침 등을 제시함. 도시계획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을 예로 들면서 녹색기반시설을 기존 도시계획과 결합해 도입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행정적인 측면도 다뤄 실용성을 높임.

(www.sd-research.org.uk/post.php?p=1349)

(www.sustainable-scotland.net/news.asp?id=2147)

(www.scotland.gov.uk/Publications/2011/11/04140525/4)

소형 전기자동차를 지역 방법순찰에 활용 (일본 요코하마市)

- 일본 닛산자동차는 2009년부터 요코하마市와 함께 추진 중인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실증실험’(YMPZ: Yokohama Mobility Project Zero)에 사용되고 있는 2인승 초소형 전기자동차(EV)를 2012년 7월 31일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 방법순찰 자원봉사조직에 제공하기로 결정함. 가나가와縣 경찰본부가 인정한 지역 방법순찰단체가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주로 폭이 좁은 주택가 등에서 활용될 예정임.



【‘NISSAN New Mobility CONCEPT’ 전기자동차 외관】

- 방법순찰에 활용되는 닛산자동차의 2인승 초소형 전기자동차(차량명: NISSAN New Mobility CONCEPT)는 2011년 9월 29일 국토교통성의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일본 최초로 2인승 초소형 전동차량의 도로주행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있음.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한 100% 전기자동차로 길이 234cm, 폭 119cm, 높이 145cm, 무게 470kg이며 100% 충전으로 약 10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최대 80km/h까지 가능함. 실증실험 시 속도는 30km/h임.
- 이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도로나 교외지역에서 대중교통과 연계해 이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을 수 있음. 또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지점을 이동해야 하는 관광지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

모든사람의 일상적인 이동수단 지원	대중교통과 결합되어 편리성 향상	효율적인 이동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지역 활성화 촉진
고령자나 아이들과 함께 외출 시 지원	지방도로나 교외지역 또는 도심에의 접근성 향상	근거리이동에 특화된 제로에미션 모빌리티 제공	시가지나 관광지에서 돌아다니기에 편리

【‘NISSAN New Mobility CONCEPT’ 전기자동차의 활용사례】

(www.nikkei.com/article/DGXNZO44381630R30C12A7L82000/)

(www.city.yokohama.lg.jp/ondan/ymzp/pm.html)

(www.city.yokohama.lg.jp/ondan/press/h23/110929/110929.pdf)

(http://car.watch.impress.co.jp/docs/news/20110929_480475.html)

(www.corism.com/news/nissan/1457.html)

도 시 교 통

구글과 협력해 지하철 도착시간 예측 프로그램 운용 (뉴욕市)

- 뉴욕市는 구글과 협력해 지하철이 제시간에 도착하는지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뉴욕市와 구글은 2012년 7월 31일 지하철 운행에 관한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글맵 웹사이트(maps.google.com)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다고 발표함.
-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내를 지나는 모든 지하철의 지연·공사·변경계획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됨. 뉴욕의 지하철은 노선 수도 많고, 최초 건설시기가 오래되어 시간 지연이나 보수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이용객의 불만이 높았음.
-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글맵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자신이 이용하려는 역을 클릭하면 됨. 만약 클릭한 역에 'Alert' 표시가 뜬다면 그 역을 지나는 노선에 변동사항이 생겼음을 의미하며 이 표시를 누르면 자세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www.nyc.gov)